

우유에 대한 대접이 달라져야 한다



박영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우유하면 문득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했다. 물론 점심이었는데,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큰 솥을 걸어두고 강냉이 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노르스름한 양은그릇을 하나씩 들고 줄을 서서 한 바가지씩 퍼주는 강냉이 죽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런데 강냉이죽 솥 옆에는 네모나고 각진 하얀 우유덩어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한국 빈민 어린이들을 위해 보낸 것이었다. 보기도 그렇지만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아직도 뽕얀 덩어리의 고소한 우유 맛은 뇌 한켠 깊숙이 추억의 창고에 저장돼 있다.

서양 어린이들의 하얀 피부나 미인들의 고운 피부는 순전히 우유를 먹은 덕이라고 여겼다. 우유가 귀했던 터라 잘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마실 수 있는 것이었다. 달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판에 구호품이긴 하지만 우유를 먹는다는 자체가 행운처럼 느껴졌다. 우유를 먹으면 힘이 나고, 얼굴이 매끈매끈해지는 것 같았다.

당시만 해도 우유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래서인지 우유에 대한 갖가지 속설이 있었고 전설 같은 얘기들이 그럴 듯 하게 포장돼 흥미를 자아냈다. 미인은 우유로 세수를 한다든지, 우유로 맛사지를 하면 피부병이 없어진단든지 하는 얘기들이다. 절세미인 크레오 파트라가 우유목욕을 즐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유가 가득한 욕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 역시 우유욕조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고대 로마황제 네로의 왕비 포파에아 사비나도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나귀를 관리하는 노예만도 무려 500명이었다고 하니, 하얀 피부에 대한 욕망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요즘 TV의 우유 이미지 광고도 공교롭게 피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다. 우유를 싫어하는 춘향이 대신 향단이가 우유를 마시고 피부가 고와지자, 이몽룡이 향단이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피부가 희고 뽕얀 사람을 두고 '우유미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유와 미인은 뭔가 통하는 것 같아 보

이다. 우유가 피부에 탁월한 미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방과 수분이 이상적으로 혼합돼 마치 크림과 같이 바르면 피부에 착 달라붙는다. 특히 우유의 미네랄 성분은 피부보호막을 형성해 주는데다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준다.

배고플 때 귀빈 대접을 받고 이처럼 피부미용에 좋은 우유가 최근 들어서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우유가 넘쳐 판촉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 이 별 관심을 쏟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유소비가 많은 미국은 연중 다양한 우유 공익광고를 실시한다. 광고 내용도 재밌다. “부엌으로 가자. 스낵과 함께 우유를 마시자. 우유는 몸에 좋은 것” 만화적인 요소에 코믹한 제스처가 곁들여져 가슴에 와 닿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번만 봐도 머리에 각인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유광고에는 으레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의 덕망자들이 나와 입가에 하얀 우유를 묻힌 채, 인상적으로 우유를 홍보한다. 한 마디로 ‘우유는 더 없이 좋은 것’ 이란 메시지를 전한다.

우유에 종합영양소가 들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0여 가지의 성분이 포함된 완전식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이 내린 떡거리’ 라고 하는 치즈의 원료 역시 우유인 것만 봐도 그 진가를 짐작할 만 하다. 미국이 매스콤을 통해 꾸준히 우유를 광고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영양가 높은 우유로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국가의 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품질향상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지금 우리네 사정은 어떨까. 과거 공익광고 형태의 TV광고가 이제 막 상업성을 띠며 홍보를 극

대화 해나가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내 우유의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제일로 치는 덴마크 우유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품질 규정이 우유종주국 보다도 오히려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유가 그 품질만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니깐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인상마저 드는 것이다. 이렇듯 값싸게 마시면서 또한 가치높은 우유에 대한 인식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낙농기를 신바람나게 하고, 그 신바람이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그 우유가 국민건강으로 선순환되면서 ‘힘 있는 국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